

임신중 발생한 급성충수돌기염의 임상적 고찰

김신혜, 이정재

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

목적 : 임신 중 발생하는 급성충수돌기염은 비산과적인 응급 수술을 요하는 가장 흔한 외과적 질환으로 진단이 지연되기 쉬우며 심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임신 시 발생한 급성 충수돌기염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 및 임상 소견을 조사하여 이에 따른 합병증 및 임신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.

연구 방법 : 1995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약 10년 동안 서울 순천향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임신 중 급성 충수돌기염을 진단받고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 가운데 조직학적으로 충수돌기염이 증명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의무기록을 통해 후향적으로 추적 조사하고, 대상 환자들의 연령과 임신력, 수술 당시의 임신 주수, 증상 및 이학적 소견, 백혈구 수치, 진단 방법, 증상 발생으로부터 수술까지의 시간, 수술시의 마취 방법에 따른 임신의 결과와 태아의 상태 등을 분석하였다.

결과 : 총 52명의 환자가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이 중 50명이 조직학적으로 급성 충수돌기염이 증명되었고(96.4%) 증상 발생시부터 충수돌기 절제술 시행까지의 수술 지연 시간은 29.26시간이었으며 가장 흔한 증상은 우하복부통증(96%) 이었으며, 오심(92%), 우하복부로의 통증의 이동(66%) 등이 흔한 증상이었다. 37.8℃ 이상의 발열은 10%에서 보였으며, 백혈구 증다증은 40%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. 임신의 소실은 4예(8%)에서 발생하였으며 조기진통은 2명(14%)에서, 조기양막파수의 발생률은 20%였고, 태아기형은 관찰되지 않았다.

결론 : 급성 충수돌기염의 진단은 임상적 기준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며, 검사실 결과나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가 보조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. 임신 중 급성 충수돌기염은 조기양막파수, 조기진통, 그리고 태아사망과 같은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의심된다면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개복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